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2023  
우수사례집



대입과 취업을 동시에!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우수사례집



## Contents



### Part 01. 학생

대상	계약학과 학생이 탐험하는 기업세계	전상준	7
최우수상	Slow but Steady	배성경	11
우수상	어쩌면 육식의 마지막 세대, 칼을 잡았다	김정현	15
우수상	19년의 기난, 1년의 변화	전주령	19
우수상	도전의 가치를 알아가는 청년의 삶	김윤수	23
장려상	창작자가 된 시청자	김진우	27
장려상	인공지능이 살아나는 법	정창민	31
장려상	학문의 성취를 넘어서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졸업과 미래를 그리다	이원석	35
장려상	직대당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의 행복	정우빈	39
장려상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이보다더 좋을 수는 없다	김은열	43

### Part 02. 기업

대상	DX시대 : 기능직에서 기술직으로 변화하는 길을 알게 되다	(주)팰리아	49
최우수상	사회 새내기와 함께하는 계약학과 협약 기업	(주)달리셔스 게임즈	53
우수상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중소기업과 사회를 성장시키는 좋은 제도입니다	스마트에스아이	57
우수상	산학협력을 통한 전국최초 실데이터 기반 MES 교육인프라 구축!	(주)한중엔시에스	61
우수상	혁신적인 3D 프린터 기술과 인재 양성의 성공 사례	오성시스템(주)	65

## 대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계약학과 학생이  
탐험하는 기업세계 7  
경기과학기술대 시용복합과 졸업생 ————— 전상준

## 최우수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Slow But  
Steady 11  
명지전문대학 ICT융합공학과 1학년 ————— 배성경

## 우수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어쩌면 육식의 마지막 세대,  
칼을 잡았다 15  
동의과학대 스마트푸드조리과(비학위-성인재취업) ————— 김정현

19년의 가난,  
1년의 변화 19  
백석문화대 베이커리카페과 1학년 ————— 전주령

도전의 가치를  
알아가는 청년의 삶 23  
전남대 기계IT융합공학과 3학년 ————— 김윤수

## 장려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창작자가 된  
시청자 27  
가천대 게임·영상학과 2학년 ————— 김진우

인공지능이  
살아나는 법 31  
경기과학기술대 시용복합과 2학년 ————— 정창민

학문의 성취를 넘어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졸업과  
미래를 그리다 35  
전남대 스마트융합공정학과 3학년 ————— 이원석

직대딩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의 행복 39  
전남대 스마트융합공정학과 2학년 ————— 정우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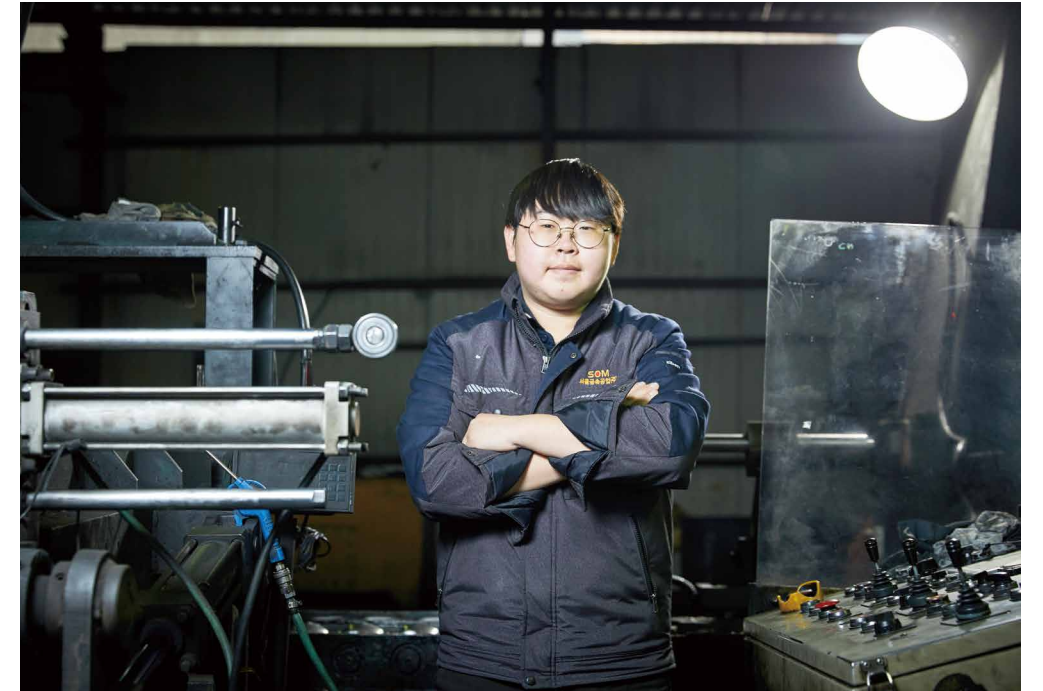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43  
한양대 ERICA 스마트융합공학부 로봇융합전공 2학년 ————— 김은열

# 계약학과 학생이 탐험하는 기업세계



전상준

경기과학기술대  
시용복합과 졸업생



## “대학이 바꾼 나와 회사의 미래”

부모님의 사업 실패는 소년을 어른으로 만들었다. 대학 진학 대신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위탁교육 학원을 선택한 전상준 학생에게 대학은 동경의 대상이자 꿈 그 자체였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네트워크 자격증 관리사 취득 공부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위탁교육 학원에서 알게 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그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입학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다면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당당히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전상준 학생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선택했다.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 4차 산업혁명 시대, 융복합 인재를 꿈꾸다

전상준 학생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적부터 곧잘 컴퓨터를 다루곤 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컴퓨터 공학에 대한 관심은 전상준 학생을 자연스럽게 경기과학기술대학교 AI융복합과로 이끌었다.

AI융복합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실무형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융합형 인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해당 학과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전상준 학생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스마트팩토리 개론과 머신러닝 등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실무 중심의 AI융복합 교육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인공지능으로 가공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수업을 받은 지 1년. 드디어 실전에서 그동안 갖고있던 능력을 발휘할 시간이 찾아왔다. 새 학기가 시작된 2023년 2월부터 전상준 학생은 시흥스마트허브 단지 내 구리소재 전문 기업인 '서울금속공업주식회사'로 출근을 시작했다.



## 내가 느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_학생 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덜어준 선택입니다”

### Q1. 내가 생각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장점은 무엇인가요?

또래 친구들과 달리 취업이 확정된 상태로 학교에 다니다 보니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학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학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 Q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택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의미 없이 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선택하길 추천합니다. 취업이 보장된 상태로 전공 교육과 실무 경력, 장학금까지 1석 3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노력만이 살 길! 메모와 복습을 통한 역량 강화

사회인으로 발을 내딛으며 의기양양했던 것도 잠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니 막막함이 밀려왔다. 평일에는 회사업무, 주말에는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줄어든 자신감만큼, 전상준 학생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입사 초반에는 ‘업무 중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배운 교육이 실무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이를 악물기로 결심했죠. 우선 생활 패턴을 회사 생활에 맞췄어요. 주말에도 출근하는 것처럼 일어나 학교에 다녔어요. 업무 중 모르는 부분은 수시로 메모해 두었다가 선배님에게 물어보고, 일이 끝난 후 기숙사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며 공부 했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회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 전공 지식을 무기로 나만의 길을 개척하다

입사 후 6개월 뒤 전상준 학생은 그동안 갖고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도시가스과 정제유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겸용 버너 개발 R&BD(사업화연계 기술개발) 과제의 메인 멤버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때 학과 과정에서 배운 AI융복합 지식과 OJT 과정에서의 현장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전상준 학생은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여 겸용 버너를 만들어 사용했을 때 연간 42%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 값을 도출해 냈다. 이 일로 업무에 탄력을 받은 전상준 학생은 스마트공장 구축의 핵심인 생산관리시스템(MES) 도입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홈페이지 구축 등 과정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연달아 두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보니, 지난 1년간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회사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성취와 보람을 느꼈고, 보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 내가 바꾼 오늘, 내가 만들어 나갈 미래!

전상준 학생은 2023년 8월, 공학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이뤄냈다. 그리고 성실한 근무 태도와 프로젝트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특별히 연봉을 인상 받는 기쁨도 누리게 되었다.

현재 전상준 학생은 MES 전담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교에서 쌓은 역량을 심분 발휘하고 있는 한편, 본사와 계열사 3개 공장의 물류 및 회계시스템을 통합하는 ‘통합 ERP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멤버로서 의미 있는 회사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만난 후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회사의 여러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싶고요. 기계자동화공학과 같이 직무와 관련된 학사 학위 전공 심화 과정을 이수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Slow but, Steady



최우수상

## 배성경

명지전문대학교  
ICT융합공학과 1학년



### “조금 늦었지만, 그만큼 단단한 걸음으로”

배성경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 11년 만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입학한 늦깎이 대학생이다. 그동안 대학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프리랜서 영어강사 일을 하다가, IT회사에 입사하면서 기술과 이해력 부족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한계를 느꼈다. 퇴사 후, 기초부터 다시 배우기 위해 그가 택한 것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한 명지 전문대학교 입학이었다. ICT융합공학과, 생소한 분야지만 배성경 학생은 스스로의 선택을 응원하고 있다. 성장이란 누구와의 비교가 아니라 스스로 쌓아나가는 것이고, 그는 지금 충분히 성장하고 있으므로.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택한 길

네트워크 기술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인 국제 네트워크 자격증(CCNA)을 취득하고, 배성경 학생은 2021년 수원에 있는 IT회사에 입사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3개월간 IT 관련 학원을 다녔지만 막상 회사를 들어와 보니, 자신이 자꾸만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 동료들은 대부분 해당 분야에서 10~25년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에서 배성경 학생은 영어 통·번역 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결과물을 같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해당 분야에 대한 바탕이 부족해 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배성경 학생은 회사에서 느끼는 장벽이 자신의 기초지식 부족 때문이라 생각했다. 차근차근 쌓아올린 지식과 경력 없이 실무부터 하려니 어려운 것은 당연했다. 사직서를 내고 나와, 배성경 학생은 생각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는 말자.”

그런 생각으로 배성경 학생이 택한 것이 학업과 취업을 모두 돕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였다.

## 기업 면접, 의지를 보여주고 결과를 얻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대학을 가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부모님에게 학비 부담을 드리고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성실하게 출석하고 수업을 잘 들으면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참여기업 면접을 볼 때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다. 옆자리에는 대부분 자신보다 어린 친구들이었고, 서른 넘은 자신이 너무 나이든 사람처럼 느껴졌다. 20여 개의 기업 중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하고만 면접을 봐도 되지만 배성경 학생은 전체 기업과 면접을 진행했다.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을 전부 만나 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면접 때 나이에 대한 질문을 여러 번 받았는데, 저는 제가 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ICT융합공학과를 지원하게 되었는지 대답하고 배우고자 하는 저의 의지도 피력했어요. 이런 제 의지와 노력을 알아준 단 한 회사가 있었는데 바로 휴버텍이었어요.”

## 우수논문상 수상 등 성실하게 채워나간 학교생활

휴버텍은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전문기업으로 2023년과 2024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배성경 학생은 자신을 알아봐주고 믿어준 휴버텍에 부끄럽지 않은 사원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3월 입학 후, 배성경 학생은 프로그램 언어(Java, C언어, Python) 등 기초부터 지식을 닦아 나갔다. 세 언어를 한 번에 배우면서 혼동을 느끼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맞는 언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느꼈다.

또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캡스톤디자인 수업에서는 팀원들과 주제를 선정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수업 출석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논문을 쓰고 학술대회에 발표해 우수논문상을 받기도 했다. 조장으로 참여한 배성경 학생은 혼자서는 해내지 못할 일을 팀원들과 해내면서 협업의 중요성과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동시에 얻었다.

## 좌절 대신 도전, 어느 환경에서도 성장하도록

2024년 3월, 배성경 학생은 휴버텍으로 입사를 하게 된다. 18개월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고 현업에서도 많은 것을 배워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해 공부를 더 이어나가고 싶다는 목표도 세웠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공부를 하면서, 나이에 굴하지 않고 배움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대학생활을 열심히 한 만큼,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일원이 되고 싶어요. 혹여나 다시 힘든 일이 닥쳐도, 제가 도전을 해내고 성장을 이뤄내는 사람이라는 든든한 믿음이 생겼으니 잘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 내가 느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_학생 편

“학업과 취업, 소중한 도움을 주는 교수님들이 있어 매순간 힘이 됩니다”

### Q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공부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했으면 합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학업과 취업을 이뤄내는 만큼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정하고, 그것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서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Q2.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데 있어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얻은 것 중 가장 큰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소중한 도움을 교수님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학업을 잘 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의논할 학우가 있다면 여러 문제를 이겨내는 데 훨씬 힘이 됩니다.



# 어쩌면 육식의 마지막 세대, 칼을 잡았다



김정현

동의과학대학교  
스마트푸드조리과(비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으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서는 학위 과정 외에 비학위 과정인 '성인 재취업훈련 과정'을 운영 중이다. 김정현 씨는 샤퀴테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던 중 동의과학대학교 스마트푸드조리과를 알게 되었다. 해당 과에서는 일반인이 비학위 과정으로 수업료 없이 들을 수 있는 스마트푸드창업실무 과정을 운영 중이었다. 그 과정 안에 샤퀴테리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있었다. 김정현 씨는 이 과정에 지원하여 4개월간의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했고 이제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을 준비 중이다.







## 우연한 관심에서 비롯된 새로운 배움

김정현 씨가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푸드 창업실무 과정에 지원하게 된 것은 샤퀴테리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샤퀴테리는 육고기를 염장·훈연·건조 등 다양한 조리 과정으로 가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몽, 잠봉, 프로슈토, 살라미 등이 여기에 속한다.

김정현 씨는 얼마 전, 외국인인 지인의 남편이 어릴 적 할머니가 집에서 염장으로 만들던 고기를 주변에 나눠주다가 그 레시피로 사업체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작은 식료품점에서 시작한 그 회사는 현재 백화점과 온라인 마켓에도 입점할 만큼 크게 성장했다.

샤퀴테리는 10여 년 전만해도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아이템이었을 테지만, 지금은 충분히 매력적인 창업 아이템이었다. 이러한 성공스토리를 듣고 김정현 씨 역시 샤퀴테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과정을 뒤지다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를 알게 되었다.

## 식육가공업체들이 협력하여 특화된 교육 실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학생에게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모두 제공하면서 학비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이 제도 안에 학위 이수나 목표가 아니라 배움 그 자체가 목표인 사람을 위한 비학위 과정인 스마트푸드창업실무 과정이 있었다. 거기다 학비까지 전액 지원이라니. 김정현 씨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샤퀴테리라는 새로운 분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특화 교육 뿐 아니라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특히 부산 경남 지역의 여러 축산가공업체가 협력해, 이 과정에 참여한 수강생에게 발골 및 정형 기술과 다양한 식육가공 기술을 알려준다는 것도 반가웠다.

“발골사는 숙련이 필수인 고급 기술직임에도 양성시설이나 체계화된 교육과정 등 전수에 필요한 요소들이 미흡해서 관심이 있어도 시작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과 지역 내 식육가공업계가 협력해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더니. 수강생으로서는 행운이었습니다.”

## 전문적인 커리큘럼으로 부딪힌 배움

스마트푸드창업실무 과정은 식품영양학 교수의 전문적인 이론 교육, 해당 분야 오랜 숙련자의 실기 교육, 업계 최고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노하우 등 알찬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습자들은 실습 첫 날부터 돼지 이분도체를 직접 발골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또 3일 간 이루어진 샤퀴테리 특강에서는 30년간 호텔 총주방장으로 근무한 스위스 출신의 샤퀴테리 전문 셰프의 이색적인 육가공 방식을 접할 수 있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고, 육가공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도 좋았지만 수업을 같이 들었던 수강생들, 이 교육과정을 기획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과의 만남 역시 유익했습니다. 음식 사업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 과정 수료 후,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

김정현 씨는 현재 샤퀴테리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판매 가능한 메뉴 개발을 준비 중이다. 이런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데는 스마트푸드창업실무 과정의 수업이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식재료로서 고기를 자주 접하지만 그 고기가 어느 부위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골되었으며 가공되었는지 전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 과정으로 그런 지식을 전문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고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도 꿈꾸게 되었습니다. 식육가공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동의과학대학교 스마트푸드조리과에서 깊이 있는 지식과 새로운 기회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 내가 느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_학생 편

“실습의 비중이 높아 실무에 훨씬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 Q1. 내가 생각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장점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푸드 창업실무 과정은 일반인도 다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들 처럼 100%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저의 경우, 원했던 샤퀴테리를 배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 창업 특강 프로그램 운영 등도 배워서 업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 Q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것이 있다면?

4개월 간 참여했던 스마트푸드창업실무 과정을 통해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과 기술 습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이런 유익한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혜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을 들었던 그 시간들이 앞으로 새로운 분야로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 19년의 가난, 1년의 변화



전주령

백석문화대학교  
베이커리카페과 1학년



“돈에 발목 잡힌 꿈  
날개를 펴다.”

전주령 학생의 꿈은 제과제빵사이다. 명확한 꿈이 있었지만 전주령 학생에게는 꿈을 위해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꿈으로 가는 과정을 선불리 시작할 수 없었다. 그러던 전주령 학생에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새로운 문이었다. 입학과 취업을 한 번에 시켜주고 등록금도 지원해준다는 설명 문구에 전주령 학생은 달라졌다. 꿈을 가슴에 묻어두지 않고 바깥으로 꺼내 움직이게 했다. 백석문화대학교 베이커리카페과 학교생활과 성심당 취업, 지금 전주령 학생은 자신의 꿈을 마음껏 실현 중이다.





## 어느 날 문득, 꿈을 펼칠 기회를 만나다

우연히 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시설명 포스터는 전주령 학생의 꿈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되었다. 지난 19년 동안, 가난은 늘 전주령 학생이 원하는 것을 좌절시켰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학교 졸업반, 전주령 학생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인 백석문화대학교 베이커리카페과를 목표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모전에도 출전하는 등 노력하는 학생으로 변했다.

그리고 드디어 백석문화대학교 베이커리카페과 입학 면접, 전주령 학생은 참여기업 중 평소 동경하던 대전을 대표하는 베이커리 브랜드이자 향토기업인 성심당에 지원했다. 면접의 떨림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합격 통보를 받고 전주령 학생은 어느 때보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에게 더 이상 폐를 입히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온 눈물이었다.



## 내가 느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_학생 편

“실습의 비중이 높아 실무에 훨씬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 Q1. 내가 생각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성적보다 제가 가진 능력만으로 평가되어 졸업 후 취업 걱정 없이 대학 생활도 하고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특히 학비 부담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다른 과들보다 실습 수업의 비중이 높아서 실제 업무에서 쓸 기술을 빨리 익힐 수 있는 점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Q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것이 있다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있고 적응력이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체력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 모두가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대할 때도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야로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사회인으로 조금씩 성장하는 시간

입학 후 몇 개월은 아무 생각 없이 제과제빵 기술을 익히는 데만 몰두했다. 어느덧 기본적인 기술이 몸에 익어갔고,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그래서 1학기가 끝날 즈음, 한국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에 나갔고 초콜릿봉봉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대회를 준비할 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할까 하는 충동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베이커리카페과 교수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포기는 한순간이지만 상을 타면 평생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조언과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나자 다른 대회나 낯선 기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새로운 경험이 나를 성장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죠.”

## 자신감과 자존감을 단단하게 쌓은 일년

학교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야 하지만, 전주령 학생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되어서 학우들에 비해 자격증이 없는 편이다. 전 같으면 위축될 만한 상황이지만, 전주령 학생은 이제 그런 데 휘둘리지 않을 만큼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

“더 이상 가난에 사로잡혀 스스로의 재능이나 노력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저는 많은 원동력을 얻었고 저는 느리더라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저에게 학업과 취업만 안겨준 게 아니라, 단단한 마음도 가지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커리카페과에서 보낸 일 년은 삶에서 가장 특별한 일 년이었어요.”

## 배움을 확인한 현장실습, 만족 그 자체

2024년 1월, 2주 동안 전주령 학생은 현장역량강화 과정을 다녀왔다. 대전 성심당 DCC점으로 출근해 제빵 성형을 담당했는데,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현장에서 제빵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행복한 순간이었다. 특히 학교에서 배운 빵 성형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해볼 수 있어 배움과 현업이 제대로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현장실습까지 다녀오고 나니, 전주령 학생은 더욱 가슴이 뛰고 있다. 곧 졸업이고 진정한 사회인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 다가온다. 그토록 바라던 제과제빵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게 되고 원하는 직장에서도 또 새로운 것을 배워나갈 것이다.

다가오는 순간 하나하나가 전주령 학생에게는 배움이고 기회일 것이며, 언젠가 도달할 자신만의 목표를 빚어낼 재료가 될 것이다. 전주령 학생은 이렇게 변화한 스스로가 만족스럽다. 그리고 미래의 자신에게 떳떳하다. 오늘을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다.



# 도전의 가치를 알아가는 청년의 삶



김윤수

전남대학교  
기계IT융합공학과 3학년



“목표 없던 방향,  
도전의 가치를 알아가다.”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던 김윤수 학생은 꿈이나 장래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모범생과는 거리가 먼 생활,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는 미래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새롭게 자신을 가다듬는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그가 찾던 '방향'이었다. 특히 취업을 연결시켜주면서 학비 지원으로 대학도 다닐 수 있다는 조건이 마음을 끌었다. 전남대 기계IT융합공학에 입학한 그는 현재 한 회사의 생산관리자로 탄탄히 실력을 다져나가는 중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밑은 업무에서 완벽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그려나가고 있다.





## 미래가 보이지 않던 고등학교의 삶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김윤수 학생은 자신이 훗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다. 다만 '돈은 잘 벌고 싶지만 노력은 하지 않는' 생활에 젖어 있었다.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귀가가 늦어지자 부모님은 용돈을 끊었고, 그는 '직접 돈을 벌어서 용돈을 쓰면 된다'는 마음에 택배회사 야간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1학년 1학기가 끝나갈 무렵,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이 이뤄졌는데 반 친구들은 공업 계열 학교답게 모두 목표하던 장래 직업군을 이야기했지만 김윤수 학생은 미래에 관심이 없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꿈 없이 1학년이 끝났고 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하고 후에 PC방과 아르바이트를 오가며 하루하루 의미 없는 생활이 이어졌다.

유난히도 춥던 겨울,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면서 발이 찢어질 듯한 고통을 겪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이렇게 살면 정말 나는 미래가 없겠구나'라고 깨달았다.



## 내가 느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_학생 편

“꿈이 없던 저에게 미래라는 희망을  
불어 넣어준 기회였습니다”

### Q1. 내가 생각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 만에 학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회사 경력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서는 입학과 동시에 내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거기다 공부하면서 경력까지 쌓은 뒤, 취업할 수 있으니 꿈과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학생이라면 충분히 매력을 느낄만한 조건입니다.

### Q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것이 있다면?

꿈이 없던 저에게 꿈이 생겼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력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목표가 생기면서 훨씬 생활이 능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뀜으로써 저는 '미래가 없겠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모습을 버리고 '미래가 있는 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 방향을 끝내줄 선택,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김윤수 학생은 2학년 때 퍼뜩 정신을 차렸지만 자꾸만 자신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들었다. 학업 성적이 좋지 못해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서도 유리한 위치가 아니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라도 우선 해보자'하고 시작했는데 의외로 응시했던 시험에 바로 합격을 했다.

열심히 한 과정들은 조금씩 결과로 나타났다. 교내대회 수상 경력도 생기고 과정평가형 산업기사도 취득했다. 이런 성과를 받고 나니 조금씩 '나도 잘 할 수 있구나'하는 자신감이 생겼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여전히 '꿈'은 없었다. 다시 불안이 찾아왔다. 친구들은 대학 진학, 혹은 취업을 선택하고 진로에 맞는 준비를 했지만 김윤수 학생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방향했다. 그 때 전공과목 선생님이 진로 상담 중에 "공부를 더 해보면 어떨겠냐?"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추천해주었다.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 명확한 방향, 능동적인 학교생활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전남대학교 기계IT융합공학과에 입학하고 과대표에 지원했다. 코로나19 상황이라 단체 활동이 제한되는 시기였지만 김윤수 학생은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해보고 싶었다. 수업 또한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임했다.

학과 전공수업은 어려웠지만, 잘 하고 싶은 의욕이 불탔다. 특히 이론 수업은 새로운 게 많아도 실습 교과들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플랜트용접공학 과목의 경우는 동기들 대부분 용접을 처음 접해보 어려워했지만, 김윤수 학생은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교수님 옆에서 '용접 조교' 역할을 하며 동기들을 돕기도 했다. 덕분에 A+라는 빛나는 점수가 주어졌다.

## 회사 입사, 더 큰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중

김윤수 학생은 2학년을 마치고 제철소 협력기업에 입사해 생산관리직을 맡게 되었다. 어떤 품목이 정해진 일자 안에 원활히 납품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과 현장의 재고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장점은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수 학생은 자신의 담당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면서 새로운 목표도 세우고 있다.

“현재는 생산기술부서에서 생산관리자로서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PM부서(프로젝트사업부서)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 PM부서에서는 제철소 설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관리 범위가 큰 부서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가다운 경력이 붙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언젠가 PM부서에서 일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완벽한 전문가가 되는 꿈, 지금 제가 꾸는 꿈입니다.”



# 창작자가 된 시청자



김진우

가천대학교  
게임·영상학과 2학년



## “게임 콘텐츠 구독자에서 게임 영상 PD로”

김진우 학생은 수시 원서 접수를 하다가 우연히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알게 되었고 여러 혜택에 매력을 느꼈다. '원서 중 하나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가천대학교 게임·영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다. 이어 지원한 회사를 고르던 중 김진우 학생의 눈이 번쩍 뜨였다. 자신이 구독하는 콘텐츠인 <게임동아>를 제작하는 회사가 참여기업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김진우 학생은 더 살펴볼 것도 없이 IT동아를 선택했다. 그리고 현재 김진우 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이 바라던 게임 영상PD로도 일하고 있다.





## 덕업일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서 실현

<게임동아>는 김진우 학생이 즐겨보던 게임 채널이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인 가천대학교 게임·영상학과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뜻밖에 참여기업 리스트에 <게임동아> 채널을 운영하는 IT동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IT동아는 동아일보 계열사로 IT 및 게임 종합미디어이다.

김진우 학생은 특히 '버추어 파이터 3' 세계대회 준우승으로도 유명한 조학동 기자의 게임 칼럼이 연재되는 <게임동아 킴덕연구소>의 열혈 구독자였기 때문에 가천대학교 게임·영상학과에 대한 호감은 더욱 커졌다. 우연이 겹친 인연이었다.

김진우 학생은 망설임 없이 참여기업인 IT동아에 지원했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혜택을 받으며 2022년 기대로 부푼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 학과 수업이 실무에 바로 적용되는 경험

1학년을 보내며 김진우 학생은 오롯이 학업에 전념했다. 게임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학교 수업이 더 귀에 쏙쏙 들어왔다. 수업에서는 실제 현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알려주는데, 게임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김진우 학생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다.

그중에서도 포토샵, 프리미어프로, 3D그래픽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힐 수 있었던 'SW활용'과 게임 산업의 구조, 이슈, 업계 용어, 전망 등을 알려준 '게임산업개론' 과목은 IT동아로 입사해 업무에서 바로 활용할 정도로 유용한 과목이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실무에서 만날 때, '수업 때 놓치지 않고 열심히 배워두길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과 수업도 실무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느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톡톡히 학습해야 할 게 많았습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겠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공부했는데, 덕분에 회사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매체이다 보니, 학과에서 배운 산업 전반적인 배경지식이 도움 될 때가 많습니다."

## 즐거보던 매체의 PD로 일과 학습 병행 중

현재 김진우 학생은 IT동아 내 <게임동아> 편집부에서 게임 영상 PD로서 근무하며 게임 관련 동향이나 이슈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매체의 특성상 작업물(영상, 기사)이 대중들에게 즉각적으로 노출되는데,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게임 행사인 '지스타 2023'를 취재했는데 현장에서 새로 공개된 게임들, 시연할 수 있는 게임들, 각 부스들의 모습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기사로 배포했다. 행사 현장에 방문하지 못한 사람들도 행사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작물이 나와 만족스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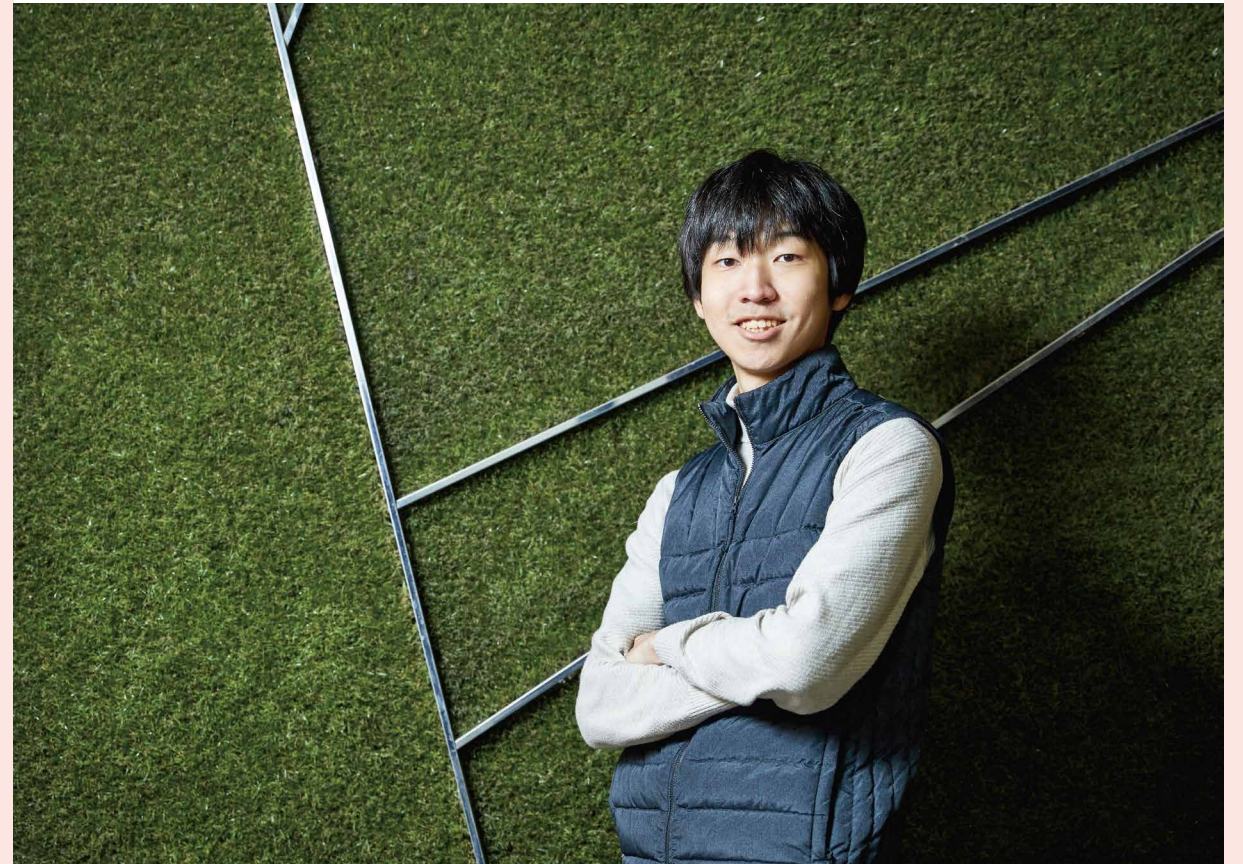
일과 학습을 병행하느라 체력적으로는 힘들지만 일이 주는 만족과 희열이 피곤을 씻어주기도 한다.

## PD로서 계속 성장하는 자신을 그려보며

지금도 김진우 학생은 PD로서 각종 취재와 촬영을 자주 다니느라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득 <게임동아> 채널에서 연재하는 콘텐츠를 즐겨보던 구독자 중 한 사람이, 어느새 <게임동아>의 일원이 되었다는 깨달음이 들곤 한다. 그럴 때면 괜히 가슴이 벅차기도 한다.

원하는 직업과 회사를 정하고, 그에 맞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서 보낸 지난 2년은 하루하루가 성장하는 시기였다. 물론 아직도 김진우 학생은 더 배울 것이 많고 더 성장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좋아하는 일과 함께라면 그 시간마저 달콤하리라 믿고 있다.

"앞으로도 <게임동아> 매체에서 좋은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드는 영상을 이전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PD로서 제가 가진 목표입니다."



### 내가 느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_학생 편

"혜택 많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업을 성실히 들으면 얻는 게 더 많아집니다"

#### Q1. 내가 생각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학업과 회사를 병행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장학 제도가 우수한 것, 졸업을 빨리할 수 있는 것 등이 모두 장점입니다. 특히 저는 원하는 회사에 출근해 일하면서 제 꿈을 실현시키고 있다는 점이 가장 뿌듯합니다.

#### Q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것이 있다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학교생활 중에 직장 실무 경험을 하고 경력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일반 대학을 다닐 때 얻을 수 있는 경험 중 일부는 과감하게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점과 혜택이 많지만 그 과정을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학년 때는 다른 친구들이 실 때 계절학기 수업을 해야 하며 하며, 2학년부턴 회사에서 퇴근하고 수업을 들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된 만큼 얻는 것도 많습니다.

# 인공지능이 살아나는 법



장려상

정찬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SI융복합과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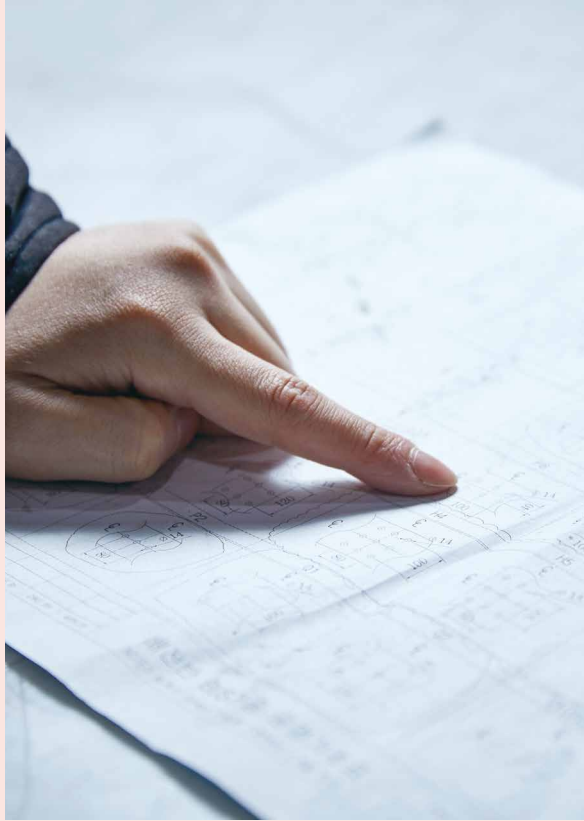


“새로운 선택으로  
다시 살아나는 법”

예체능을 준비했지만 원하던 진학을 하지 못했던 정찬민 학생에게  
고등학교 졸업 이후는 그저 막막함 그 자체였다. 재수를 하고 싶었지만  
갈 곳을 잃은 것처럼 방향이 이어졌다.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군대를  
대녀와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그는 우연히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소개하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기술 하나만 잘 배워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  
는 어른들의 말이 떠올랐다. 흐릿한 안개를 걷고 뚜렷한 길을 찾게 된 계기  
정찬민 학생에게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그 길의 안내자였다.







## 방향하던 진로, 드디어 길을 찾다

시용복합과는 인공지능을 기계에 접목하여 많은 분야에 더 나은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게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 학과이다. 정창민 학생이 시용복합과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리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관심이 없는 분야라면 그 일을 오래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대학 진학을 결심하고 시용복합과의 진로를 꼼꼼히 살펴보니 평소 관심 있던 컴퓨터를 배우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종으로 취업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정창민 학생은 시용복합과가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라는 확신이 들었다.

입학 후, 코딩 작업을 전문적으로 배울 때, 정창민 학생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공부의 재미와 성취감을 오랜 만에 느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꽤 긴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도 긍정적인 성과였다.

“아무 좌절 없이 대학 진학을 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는 이에게는 이런 성취감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정체되어 있던 저에게는 남달랐습니다. 비로소 남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오롯이 나의 것이 집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목표도 조금씩 윤관이 드러나는 느낌이었습니다.”

## 배우고 시도하고 계속 경험하라!

배우고 시도하고 계속 경험하라

정창민 학생은 인공지능을 배우며, 인공지능이 사람과 많이 닮았다고 느꼈다. 인공지능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코딩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데이터를 쌓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 교재나 수업내용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부딪혀 봐야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였어요. 또 수업에서 배우는 것 외에 실무에 나가면 다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을 것이라는 조언도 해주셨고요. 현장에서 실무를 하며 배울 수는 있지만 그때는 연습이 아닌 결과를 도출해야 하니, 가능하면 학교에서 이것저것 배우고 시도해보라는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사회생활 적응을 돕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년이라는 짧지만 굵은 학교 교육을 마치고 2학년부서는 조기 취업을 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했다.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 학교에 나가 공부를 했는데, 회사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학교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새 회사 생활 1년 째. 정창민 학생은 회사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업무에 만족하는 중이다.

“회사에서 생산 관리와 수주 관리를 하고 있고, 가공된 제품이 들어오면 도면을 보며 가공 제품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 활동적인 일을 좋아하는 편이라 업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창민 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배운 오토캐드라는 과목 덕분에 실무에서 설계 도면을 대할 때 빨리 익숙해질 수 있었다. 또 학교에서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진행하면서 팀원들과 의견 조율을 했던 경험이,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도움이 되기도 했다.

## 세상을 가는 여러 길 가운데 내가 개척한 길

정창민 학생은 회사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상사들과 소통하면서 풀고 있다.

이런 조직생활에 대한 팁은 학교에서 들은 교수님의 조언이 큰 역할을 했다.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회사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진로를 변경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위축되었는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만난 후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교수님들께서 해준 본인들의 경험과 조언은 저의 생각을 넓히는 데 큰 계기가 되었고요.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제가 스스로 미래를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그 점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얻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 내가 느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_학생 편

“학교에서 학습과 취업을 모두 살펴줘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 Q1. 내가 생각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원래 가려고 했던 진로와는 전혀 다른 분야라서 걱정이 많았지만, 학교에서 수업 중 꾸준히 진로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어安心이 되었습니다. 또 학과 수업이 취업과 직접적인 연계가 되다보니 교수님께서도 사회 생활에 대한 부분까지 친절한 조언을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연히 학교와 과에 대한 신뢰가 올라갔고, 이러한 신뢰가 공부나 취업을 하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 Q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것이 있다면?

입학 후 회사가 정해졌다고 안주하지 말고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동아리 활동이든 공모전이든,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 학문의 성취 를 넘어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졸업과 미래 를 그리다

장려상

이원석

전남대학교  
스마트융합공정공학과 3학년



“로봇 공학자라는  
꿈에 점점 가까이”

이원석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로봇 개발자라는 꿈을 키웠고 고등학교 때는 로봇 동아리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목표를 다져나갔다. 특히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로봇 공학의 발판인 물리를 배울 수 없었기 때문에 동아리 회원들과 인터넷 강의를 통해 학습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을 앞두고는 로봇 분야의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대학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때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알게 되었고 로봇의 핵심인 자동화에 대해 배우기 위해 전남대학교 스마트융합공정공학과로 진학하게 되었다.





## 로봇 공학에 대한 꿈이 이끈 학교

대학에 입학한 후 1년은 스마트공장개론, 자동화설비실무 등 전공과목을 통해 로봇 공학 학문에 대한 이론 공부를 해나갔다. 이원석 학생은 로봇 관련 일을 하고자 하는 꿈이 확실했기 때문에 스마트융합공정공학과와 수업들을 누구보다 즐겁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2학년이 되어 출근하게 된 첫 직장은 로봇 기술을 다루는 회사가 아니라 전기 제어 프로그램인 PLC프로그램을 주로 다루는 회사였다. 로봇 기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지닌 채로 입사했지만 전기 관련 분야를 주로 다루다보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다행히 1학년 때 공정제어실무나 전기제어회로실습 같은 과목을 배웠기에 가능하면 '전기' 분야에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그런 노력을 거듭하자, 점차 전기와 자동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붙었다.

## 첫 회사 퇴사 후 두 번째 회사에서 빛을 발하다

이원석 학생이 업무에 겨우 익숙해질 무렵, 회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회사의 요청으로 이원석 학생은 군대를 들어갔고 군 복무 중에 전기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하지만 전역 후, 회사에서는 그에게 사직을 권유했고 이원석 학생은 다시 스마트융합공정공학과 교수님들에게 취업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다시 입사하게 된 곳은 전기판넬, PLC프로그램, 로봇, R&D과제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엘케이라는 회사였다. 이원석 학생은 로봇 분야와 R&D과제 진행 업무를 맡았고, 입사한지 얼마 안 돼 담당 컨설턴트 교수와 함께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원석 학생은 수작업으로 재활용하던 폐기물을 자동화하는 개발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프로젝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전력했다. 경험과 지식은 아직 부족하지만 환경법을 확인, 자동화 파쇄기 설비의 컨셉 도면 작성 등을 담당하며 프로젝트 성공에 노력과 열정을 다했다.

이런 노력을 회사 역시 눈여겨보았다. 회사에서는 이원석 학생이 로봇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로봇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을 해주었다.

## 로봇 공학자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이후 이원석 학생은 회사 지원으로 두 번의 협동로봇 프로그램 교육을 받았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그는 로봇 공학자로서의 꿈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 교육을 계기로 이원석 학생은 킨텍스 전시와 엘케이 공장 내 고객 시연을 진행하며 회사가 지닌 기술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맡았다.

회사에서는 이원석 학생에 대해 더 높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에게 업무를 맡겼다. 이원석 학생은 자동화시스템 구축 업무를 성실히 진행하면서 동시에 로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해나갔다.

## 계속 꿈을 꾸며 미래를 더 크게 그리는 중

회사에서는 꾸준히 이원석 학생에게 다양한 로봇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교육과 학교 수업 등을 함께 들으며 그는 회사에 필요한 로봇 관련 전문성을 탄탄히 갖춰 가고 있다. 그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로봇 기술이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로봇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융합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로봇을 향한 열정만큼 그의 꿈은 아직도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 꿈이 미완으로 끝나지 않고 성공의 모양으로 갖추질 것임을 굳게 믿고 있다.

“학업과 업무 모두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학업에서는 전공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키우고 연구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전문성을 넓히려고 합니다. 업무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십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가로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내가 느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_학생 편

“로봇에 대한 꿈은 학업과 취업으로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 Q1. 내가 생각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학업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만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얻음으로써, 졸업 후 실제 업무 환경에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보며,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미리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Q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것이 있다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학습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주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학업과 실무 경험을 병행하는 과정은 분명 도전적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과 전문성은 자신의 미래 경력에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 직대당의 현실적인 삶속에서의 행복



장려상

## 정우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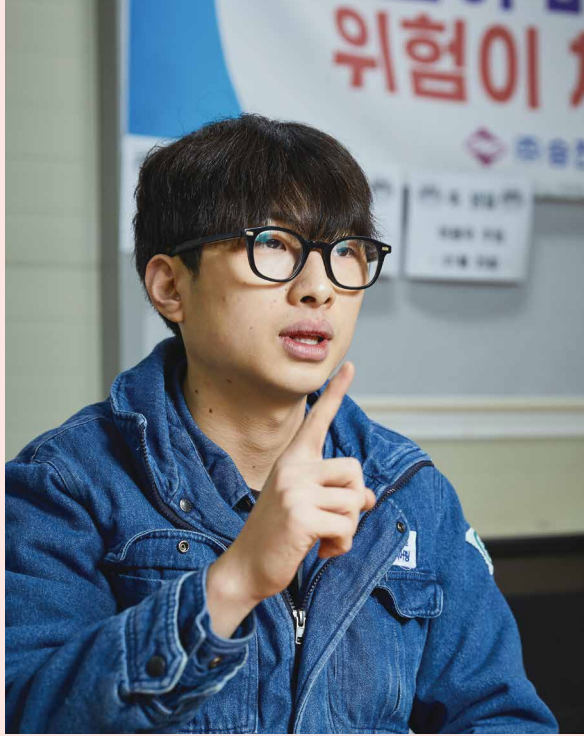
전남대학교  
스마트융합공정공학과 2학년



### “직대당, 일하면서 공부하는 행복”

미성년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어 한다. 정우빈 학생의 경우는 특히 그랬다. 성인이 되어 스스로 돈을 버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주변에서는 늘 대학이 먼저라고 했다. 빨리 직장인이 되고 싶은 마음과 대학 진학을 바라는 주변의 기대 사이에서 정우빈 학생은 방법을 찾았다. 전남 대학교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직장인과 대학생, 모두를 선택할 수 있는 길. 지금 정우빈 학생은 스스로 선택해 '직대당'의 삶을 살고 있다.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만족하는 삶이다.





## 대학과 직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정우빈 학생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라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우빈 학생의 생각은 달랐다. 대학을 나와 20대 중후반에 들어서야 직장에 들어가 사회초년생이라는 타이틀을 단다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돈에 관심이 많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생각하곤 했어요. 그런데 가족을 포함한 주변에서는 평범하게 대학을 나와서 돈을 벌면 되지 않냐고들 하셨죠. 제 생각과 다른 주변의 고정관념이 조금씩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런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입학할 때부터 취업이 보장되고, 회사에 입사하면서도 학생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선택지였다. 정우빈 학생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자는 생각으로 전남대학교 스마트융합공정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 동기 부여,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힘

스마트융합공정학과는 인공지능개론이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처리론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배우면서 공정 산업 분야 R&D 엔지니어로 취업할 수 있는 학과였다. 1학년 동안, 학과 수업을 열심히 받자, 어느덧 2학년이 되었고 드디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시간이 왔다.

하지만 막상 이 과정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우빈 학생의 머리에는 온갖 걱정이 들어섰다. 회사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수업을 잘 받고 학점 이수를 할 수 있을지 고민과 스트레스가 몰려왔다.

“결국 제가 한 선택이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빨리 직장인이 되는 게 제 목표였고, 그 바람이 눈앞에 왔는데 걱정만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 ‘직장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학생으로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계속 스스로에게 주입했습니다.”

정우빈 학생은 직장에서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자신의 원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부모님이나 친한 지인에게 선물도 하며 사회인으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 학생과 직장인, 양쪽에서 얻는 행복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는 데 몰두했다. 직장을 다니면서 어렵게 수업을 듣는 만큼 좋은 성적을 받아야 자기 보상이 될 거라 생각했다. 또한 공부를 성실히 하면서 얻는 뿌듯함은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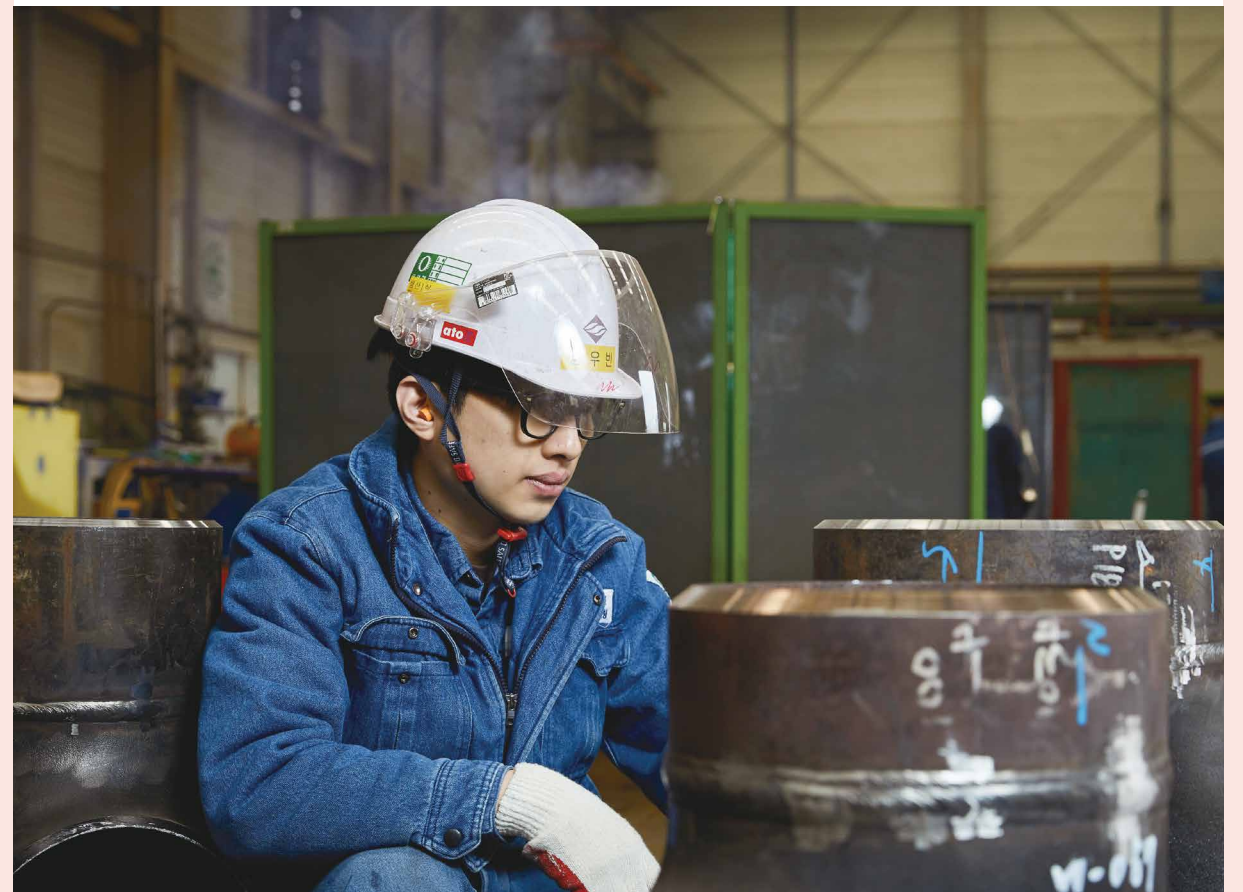
또 정우빈 학생이 학교생활과 직장생활 양쪽 모두에 소중하게 여긴 것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형성하면서 얻게 되는 유대감은 행복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극제가 되어주기도 했다.

“직장과 학교에서 동시에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어찌보면 인생에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현재를 즐기고 있습니다.”

## 하루하루 성장하는 스스로에게 응원을!

정우빈 학생이 플랜트 회사로 출근한지 어느덧 1년이 넘었다. 어엿한 직장인으로서 어느 정도 자세가 갖춰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올해 역시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잘 해내는 것이 목표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4년제 학사 과정을 3년 만에 취득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제 한 해 남은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내는 게 올해의 목표고요. 직장에서는 한 사람의 역할을 잘 해내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늘 ‘내일은 또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를 보내자’라고 다짐합니다. 내일의 나를 다짐하는 순간, 더 뒤에 올 미래의 나도 그려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스스로 성장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 내가 느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_학생 편

“직장인과 학생이라는 직업을 함께 가지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 Q1. 내가 생각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졸업 후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 진학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쓸 용돈을 아르바이트로 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른 나이에 대학을 다니며 직장인으로서 제가 쓸 돈과 저축할 돈까지 충분히 벌고 있습니다. 단지 돈으로만 비교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저는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선택을 한 쪽이기 때문에 조기에 직장인이 된다는 걸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 Q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것이 있다면?

저처럼 빨리 돈을 벌기 위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택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면접의 비율이 큰 만큼 나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단단히 가져야 하는 선택입니다. 잘 알아보고 준비할 자세가 된 학생이라면, 저는 도전해볼 만한 선택이라고 여기며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김은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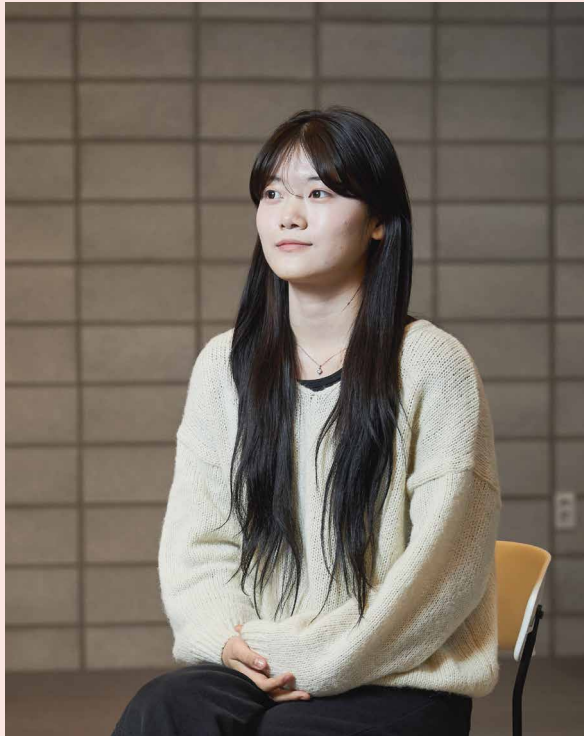
한양대 ERICA  
스마트융합공학부 로봇융합전공 2학년



“학교에서 배운 과목,  
업무 능력을 강화시키다”

사업을 하는 아버지는 신입직원을 채용한 때마다 “이론은 좀 아는데 실무를 전혀 모르니, 처음부터 새로 가르쳐야 돼.”라며 한숨을 쉬셨다. 김은열 학생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입사해서 실무를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게 이해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학업이 실무와 이어지는 선택을 하고 싶었다. 그런 목표로 선택한 것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였다. 그가 한양대ERICA 스마트융합공학부 로봇융합전공을 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그 자신의 경험과 호기심이 의료재활로봇 개발이라는 분야로 이어졌고, 이제 그는 공학도이자 개발자로 회사에 출근하고 있다.





## 관심분야에 맞는 회사를 찾다



김은열 학생이 로봇융합전공을 택한 이유는 인체에 기계를 이식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그는 선천적 백내장으로 양쪽 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했다. 그래서 평소부터 생명을 도울 수 있는 공학, 그 중에서도 의료재활 로봇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줄곧 이런 생각을 해오다가, 김은열 학생은 자신의 관심을 실현할 수 있는 회사를 발견했다. 의료재활 및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을 제조하는 스타트업인 헥사휴먼케어였다. 자신이 인공수정체의 도움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듯이, 로봇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신체적 약점을 보완해주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였다.

김은열 학생은 헥사휴먼케어의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연락을 해, 재활시설 현장체험을 신청했다. 처음 방문했을 때 “BETTER LIFE WITH ROBOT”이라는 슬로건이 바로 눈에 들어왔다. 그가 늘 바라고 꿈꾸었던 것을 한 줄로 정리해준 문구였다. 시설을 탐방해 재활훈련로봇을 직접 체험한 뒤, 김은열 학생은 헥사휴먼케어에 입사해 로봇 연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더욱 더 굳히게 되었다.

## 학업과 실무 능력을 함께 키우는 기회



김은열 학생의 결심은 헥사휴먼케어와 산학협력을 맺고 있는 한양대학교 ERICA 스마트융합공학부 로봇융합전공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됐다. 입학해보니 로봇융합전공 교수와 헥사휴먼케어가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등 학과와 기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학생들이 관련 기술 정보를 빠르게 숙지할 수 있었다. 특히 김은열 학생은 헥사휴먼케어를 지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가 요구하는 실무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다.

2학년이 되자, 드디어 헥사휴먼케어로 출근하게 되었다. 김은열 학생은 SW팀 연구원이 되어 실무에 투입되었다. 낮에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저녁에는 대학에서 학생으로. 매일 정신없이 바쁜 생활이 이어졌다. 그렇다고 학업을 소홀히 할 수도 없었다. 학교 과제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힘든 과제 때문에 교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지만, 회사에서 오히려 ‘교수님이 주는 과제가 다 너를 위한 거다’라고 응원해주셨어요. 업무를 하면서 점차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들 덕분에 현장에서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 수업에서 배운 과목을 회사 프로젝트에 활용



회사에 출근한지 벌써 1년째. 김은열 학생은 의료재활 및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헥사휴먼케어 SW개발팀에서 의료기기와 게임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용자가 게임을 즐기면서 동시에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김은열 학생은 게임 화면상의 오류들을 해결하는 프로그래밍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수시로 깨닫고 있다.

“학교 수업에서 ROS(Robot Operating System)를 다루는 수업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팀장님이 아시고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회사 내에서 ROS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과목을 잘 이해하고 회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느꼈습니다. 팀장님께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회사 프로젝트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때, 학습의 실용성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경력뿐 아니라 학문적 성장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김은열 학생은 회사에서도 인정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다. 일을 하다 모르는 부분은 학교 지도교수에게, 수업을 받다 모르는 부분은 회사 팀장에게 물어가며 이해하고 있다. 현장 실무형 수업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누리고 있는 셈이다.

“지금처럼 말고 있는 회사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고자 합니다. 또 저는 아직 학생의 신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력뿐 아니라 학문적 성장도 이루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제가 쌓은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오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 내가 느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_학생 편

“꿈이 미래가 되는 기회를 만나,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 Q1. 내가 생각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회사생활을 경험하고 실질적인 경력 또한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력 쌓기가 어려운 요즘 같은 시기에 졸업과 동시에 이미 2년의 경력을 가진 졸업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한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 Q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것이 있다면?

학교에서 취업과 연계되는 역량을 키우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또 실제 업무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상의 도움이 됩니다.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나의 성장과 발전 역시 훨씬 빠르게 얻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 대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DX시대 : 기능직에서  
기술직으로 변화하는 길을  
알게 되다

49

동의과학대 스마트뷰티케어과 (주)펠리아

## 우수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상

사회 새내기와 함께하는  
계약학과 협약 기업

53

가천대 게임·영상학과 (주)딜리셔스 게임즈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중소기업과 사회를 성장시키는  
좋은 제도입니다

57

경기과학기술대 사용복합과 스마트에스아이

산학협력을 통한 전국 최초  
실데이터 기반 MES  
교육인프라 구축

61

경일대 스마트경영공학과 (주)한중엔시에스

혁신적인 3D 프린터 기술과  
인재 양성의 성공 사례

65

한양대 ERICA 스마트융합공학부 로분용합전공 오성시스템(주)



# DX시대 - 기능직에서 기술직으로 변화하는 길을 알게 되다

대상

(주)펠리아

동의과학대  
스마트뷰티케어과



## “진정한 뷰티 전문가를 양성하는 길”

박소윤 대표는 그동안 펠리아를 운영하면서 직원 교육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던 중 동의과학대학교 스마트뷰티케어과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알게 됐다. 펠리아가 원하는 인재 양성을 학교와 함께 한다는 취지에 박소윤 대표는 호기심이 일었다. 이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협약을 맺고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는 등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난 2년 동안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교육과 채용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펠리아는 앞으로도 맞춤형 인재 양성에 열정적인 행보를 계속할 계획이다.





## 펠리아에 맞는 인재 양성, 동반자를 만나다

펠리아는 1999년에 백화점 내 오픈해 지난 25년 간 부산 지역 6개 직영점을 포함해 전국의 백화점과 마트에 18개의 직영 및 가맹 헤어살롱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브랜드를 확장하며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체계적인 직원 교육과 자사 제품 개발로 고객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남다른 경영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박소윤 대표는 사내에 직원 전용 아카데미를 만들어 직원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는 등 인재 관리에 공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는 직원의 역량과 수준이 살롱의 고객 서비스에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이런 박소윤 대표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일과 교육을 병행해 맞춤형 인재로 양성한다는 사업 취지가 펠리아가 원하는 인재 양성과 맞아 떨어졌어서였다.

## '펠리아의 미래'를 위한 각고의 노력

“학교에 가서 사업 설명을 듣는데 저희가 직접 교육과정과 교재를 만들고 학생들이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한다는 점, 펠리아와 대학이 함께 R&BD를 한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어요. 펠리아의 미래를 함께할 안정적인 인재 양성을 할 수 있고, DX(디지털 대전환) 교육으로 미용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짚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박소윤 대표는 그동안 미용 사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인으로서, 미용이 기술이 아닌 기능직으로 분류되는 데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동의과학대학교 스마트뷰티케어과에서 펠리아만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해, DX시대에 맞는 고속런 기술과 마인드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그간 바라던 맞춤형 직원 교육 동반자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에서 만난 듯했다.

## 맞춤형 직원 교육을 위한 '펠리아 과정반' 개설

“처음 스마트뷰티케어과에 지원한 학생들을 면접을 볼 때, 학생만큼 저도 떨렸어요. 설명회를 잘 해서 많은 지원자가 와주길 바랐던 마음이 컸지요. 놀랍게도 설명회 후 스마트뷰티케어과 지원자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학생이 펠리아를 지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2021년 11월, 처음으로 지원학생과 면접을 본 박소윤 대표는 ‘펠리아의 미래’를 본 느낌이였다. 당시 1기에 10명, 2기에 13명을 선발하고 기쁜 마음으로 교재 제작에 들어갔다. 헤어스타일링, 헤어컷트 교재 동영상은 밤새워 찍을 정도로 열심히 임했다.

2022년 3월, 동의과학대학교 스마트뷰티케어과에 펠리아 과정이 시작됐다. 펠리아 과정은 3학기 동안 6과목 18학점을 펠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학기 중 3시간은 펠리아 아카데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하였다.

## 훌륭한 사회구성원을 양성하는 기업이 되길

“아카데미 교육은 기술 교육뿐 아니라 펠리아의 일원으로서 지녀야 할 사명과 비전 교육을 함께 실시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기술보다 오히려 자기 직업에 대한 신념과 성장을 그럴 줄 아는 목표 의식 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직업인으로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힘든 순간을 이겨나가는 면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저희 펠리아에서는 뷰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펠리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기 위해 펠리아 4개 매장에 각각 배치되어 실무를 시작했다. 이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펠리아에서 전원 채용했다. 박소윤 대표는 개인별 역량 차이는 있지만 열심히 자기 경력을 쌓고 있는 학생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또한 펠리아는 맞춤형 인재 양성뿐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동의과학대학교와 R&BD로 헤어살롱 제품을 출시하고 헤어클리닉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박소윤 대표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펠리아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들이 각자 훌륭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고자 한다.



## 내가 느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_기업 편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될 뿐 아니라 브랜드 홍보 기회도 함께 얻었습니다”

### Q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펠리아는 백화점 내에 입점해 있는 프리미엄 뷰티살롱이기 때문에 어린 고등학생들에게는 낯선 브랜드였습니다. 이번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참여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저절로 이뤄졌습니다. 또 동의과학대학교 스마트뷰티케어과에서 운영한 펠리아 맞춤형 교육과정을 경험한 학생들로부터 “펠리아 교육과정이 체계적이라 좋았다”는 피드백을 보고 저희의 교육과정에 대한 확신도 들었습니다.

### Q2. 같은 업종의 기업에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한 추천의 말을 건네준다면?

이직률이 잦은 뷰티살롱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신입직원들도 업무 적응이 빠르면 그만큼 조직에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사회 새내기 함께하는 계약학과 협약기업



(주)딜리셔스 게임즈

가천대학교  
게임영상학과



## “게임회사에 온 사회 새내기의 좌충우돌 성장기”

딜리셔스 게임즈는 메타버스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로 그동안 게임 개발 인력 채용에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력직원은 연봉 수준이 맞지 않아서 뽑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신입직원은 대기업에 가기 전 발판으로 취업하는 일이 잦아서였다. 채용에 관한 이런 고민을 하던 이현진 대표에게 대학 입학 때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최대 2년 6개월을 함께 있을 수 있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가천대 게임영상학과와 협약을 맺은 딜리셔스 게임즈는 올해 벌써 5명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을 채용했다.





## 게임회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첫 발

현재 딜리셔스 게임즈에 입사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총 5명으로 프로그래머 2명, 그래픽디자이너 2명, 기획자 1명이다. 이현진 대표는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들을 맞이하면서 독특한 조직 적응 방법을 구상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TF팀을 만들어 게임 개발을 하도록 한 것이다.

“학생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회사에 빨리 적응하려면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들고 싶은 게임을 스스로 정하고 제작도 진행해보도록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현진 대표는 학생들이 게임을 만들 수 있게 자문 역할을 했고, 학생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 끝에 '블록스토쿠' 장르의 퍼즐 게임을 만들게 되었다.



## 내가 느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_기업 편

“채용에 필요한 시간과 수고를 대신해 주고 좋은 인재를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 Q1. 같은 업종의 기업에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한 추천의 말을 건네준다면?

기업 입장에서 인력을 새롭게 채용하고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비용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채용 공고를 내고 인력을 검토하며 회사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등, 회사에서 채용을 위해 해야 할 수고를 대신 해줍니다. 그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은 기업에서 우수한 인재를 만나고 싶다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Q2. 기업의 입장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업에서 입학 면접을 통해 학생을 볼 때는 짧은 시간에 미래를 예측하고 채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듣고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우리 회사에 와서도 충분히 성실하게 하겠구나.'하는 신뢰가 생깁니다. 가고 싶은 회사가 결정되었고 입사를 해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고 싶다면, 학교생활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전이라는 목표! 열정과 책임감이 쌓이다

“학생들이 열심히 게임 개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더 큰 동기 부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TF팀에게 현재 만드는 게임을 공모전에 접수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학생들 또한 의욕을 보여 아예 게임 이름으로 정규 팀 이름까지 정했습니다.”

학생들이 만드는 게임 이름은 '스윗몬 블록스토쿠'로 결정했고, 게임 이름에 맞추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TF팀도 스윗몬팀으로 거듭났다.

이현진 대표는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게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발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서로 업무를 확인할 마감 일정도 정하도록 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이 아닌 게임회사 일원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고 게임에 대한 진심도 쌓여간다고 믿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욕심과 열정을 보일 때, 그 역시 뿌듯함을 느꼈다.

## 실패와 불화, 그리고 이어진 성장

아쉽게 게임은 공모전에 떨어졌다. 학생들은 부풀었던 기대만큼 실망했다. 회사에서는 이 과정에서 팀 내 불화가 쌓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게임 출시가 가까워졌지만 서먹한 분위기는 여전했다.

이현진 대표는 상황을 중재했고 팀원끼리 서로 입장을 이해하도록 조언과 독려를 했다. 중요한 것은 공모전 입상이 아니라, 학생들이 조직과 업무에 잘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후 학생들도 달라졌다. 그래픽 담당 팀원들은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점심시간 등 틈새 시간을 활용해 그래픽 이론 공부를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상사들이 나서서 개인 시간을 쪼개어 그래픽 노하우 등을 가르쳐주었다. 학생들은 점차 자신감이 붙었고 결과물도 훨씬 나아졌다. 조직에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소통하고 유대감을 쌓아야 하는지 체득하는 과정이었다.

## 함께 즐겁고 맛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기를

직접 게임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개발이 완료되어도 로그인, 광고 삽입, 개발자 정책, CS 준비 등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학생들이 만든 게임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라갔다. 당시 학생들이 보여준 성취의 희열은 이현진 대표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듯 했다.

“다행히 출시된 게임은 사용자들에게 자꾸만 하고 싶은 재미있는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임 기획과 프로그래밍, 그래픽디자이너를 업무에 적용하면서 학생들이 저희 회사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이 학생들이 보여줄 역량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딜리셔스 게임즈는 앞으로도 매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꾸준히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현재 입사한 학생들처럼, 딜리셔스 게임즈와 함께 즐겁고 맛있는 게임을 만들며 성장할 미래 인재를 기대하고 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중소기업과 사회를  
**성장시키는  
좋은 제도  
입니다**



**스마트에스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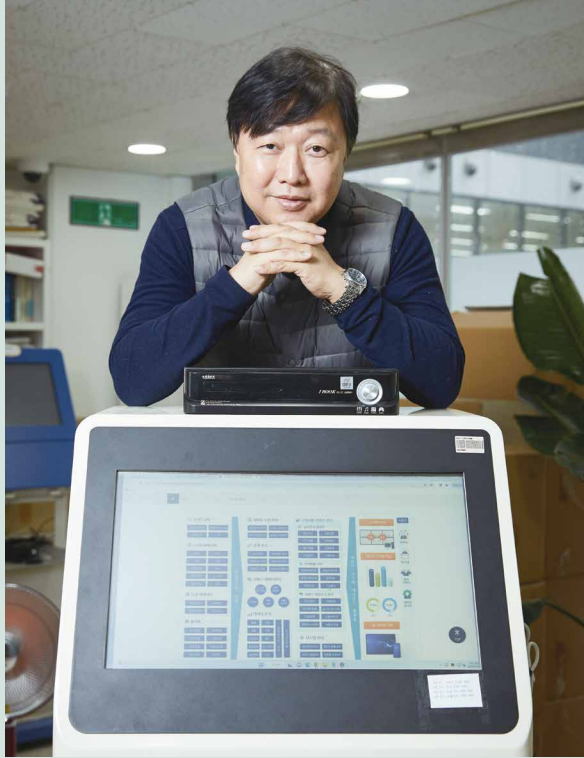
경기과학기술대  
시용복합과



“중소기업과 사회를  
성장시키는 좋은 제도”

스마트에스아이는 제조실행시스템(MES), 의사결정정보시스템(EIS), 키오스크 제품 개발 및 생산을 하는 ICT융합 제조시스템 전문 기업이다. 이유준 대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중소기업이라는 선택지가 늘 뒤로 밀리는 것이 아쉬웠다. 또 입사를 한 후에도 오래 근무를 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중요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지속적인 기술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이유준 대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라는 반가운 제도를 만났다.





## ICT 관련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

스마트에스아이는 SW 개발, 시스템 통합, 데이터솔루션, 디지털디바이스, IT 컨설팅 등 ICT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설비를 기계화하고, 제조실행시스템의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한 발 앞서 간 스마트한 제조실행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스마트에스아이는 2017년에 설립되어 연륜이 짧은 회사로 보이지만, 이유준 대표는 이미 20대부터 20여 년 간 홈페이지 제작과 호스팅 사업을 할 만큼 IT업계에서 빠가 굽은 사람이다. 그만큼 IT 관련 기술에 밝은 안목으로 그는 중소기업 제조공장의 현실에 맞는 간이생산시스템 연구 개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분야의 자동불량품 선별 및 설비데이터 지수분석 시각화 등 연구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 내가 느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_기업 편

“중소기업에서 여러분의 꿈을 더욱 크게 키우기 바랍니다”

### Q1. 같은 업종의 기업에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한 추천의 말을 건네준다면?

중소기업에게는 인력 채용이 늘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러한 숙제를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서 대신 해줍니다. 거기에 연구개발이 필요한 회사라면 산학협력으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를 원하는 기업이라면, 기업과 딱 맞는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Q2. 기업의 입장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작은 기업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조직생활하며 얻을 수 있는 실력을 3년으로 줄여서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회사에 가서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학과 취업을 함께 하고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선택하는 여러분은 진취적인 태도로 시작하는 만큼 미래도 밝으리라 생각합니다.

## 대학과 협약으로 인재 채용과 연구 지원까지

이유준 대표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시용복합과를 알게 된 것은 그동안 다양한 산학협력에 참여하면서 대학들과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한국공학대학교와 산학협력하여 스마트 공장에 관한 연구를, 2017년에는 한국폴리텍대학교와 산학협력하여 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함께 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안내하는 연락을 해왔을 때, 그 동안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수한 개발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의 연구개발을 꾸준히 함께 할 직원을 구하는 것이 늘 난제입니다. 하지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학교에서 기업에 맞는 인재를 매칭해주고 또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동안 대학에서 제공하는 R&BD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으며 회사의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공부하도록 장려하고 양성하는 문화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시용복합과와 협약 후, 스마트에스아이에서는 2학년 학생을 채용하고 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입사한 학생은 사내 ERP와 CRM 시스템을 전담하여 개발하면서 고객 온라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웹서비스 개발 업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직원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업무에 투입되어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용복합과는 지능형 공장으로 변하고 있는 제조현장에 필요한 과목을 교육시킵니다. 인공지능프로그래밍이나 스마트팩토리개론 등 현장에서 필요한 이론 수업을 하고 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무 교육을 더했을 때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회사에 입사 후에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자체적으로 웹퍼블리셔실무, 웹서버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1년 동안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수증도 발급하고 2년 차에는 더 높은 수준의 외부 유료 교육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유준 대표는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남학생의 경우, 군대를 다녀와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직원 교육을 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함께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원으로 자리 잡길

이유준 대표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재들이 올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이 안타까울 때가 많다.

5년 째 대학 겸임교수로 일하면서 그는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중견기업으로 가기 위한 발판 정도로 여기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지식을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러면 최소 3년이라는 연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년 이전에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자로서 어려움이 많고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매칭된 학생들이 회사에서 기술을 쌓으며 함께 오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마트에스아이에서는 앞으로도 매년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시용복합과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 이유준 대표는 학생과 기업이 먼저 서로를 살피고 선택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서 함께 성장하는 최적의 만남을 계속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산학협력을 통한  
전국최초  
실데이터 기반  
**MES교육  
인프라  
구축!**



**(주)한중엔시에스**

경일대학교  
스마트경영공학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MES 통합운영센터 공동 구축”

한중엔시에스는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산단로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부품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문기업으로, 2018년부터 경일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협약하여 지난 6년 동안 꾸준히 학생을 채용하고 있다. 최근 제조 현장은 급속히 스마트팩토리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중엔시에스는 스마트공장을 우수하게 운영해온 기업으로서, 경일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MES 통합운영센터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2022년부터 정규 교과목을 개설해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와 스마트경영공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MES 시스템에 대한 교육 필요

스마트팩토리 시장의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제품 주문에서부터 생산까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일괄 관리하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다. MES는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제조 기반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 역시 MES를 미리 배워두면 큰 도움이 된다.

한중엔시에스는 경일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인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 스마트경영공학과,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 학생을 꾸준히 채용하면서 MES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저희 회사에서는 경일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개설 초기부터 현재까지 현장실무를 반영한 교과 과정 편성을 위하여 학과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 맞춤형 교육을 받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들이 회사 현장에 와서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고, MES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교육과정 개발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 실데이터 기반의 MES 통합운영센터 구축

한중엔시에스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실데이터 기반 MES 교육인프라를 구축해보자고 결심한 것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MES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도 이유였다. MES 시스템과 관련한 공급업체들은 많지만, 대체로 수요 업체나 설치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별 교육을 진행하는 정도에 그친다.

MES는 실제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은 단순히 기능적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수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한중엔시에스에서는 현업에 필요한 MES 교육을 하려면 제조업체 생산 공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대학과 공유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효율적인 실데이터 기반의 MES 교육을 위해 한중엔시에스는 경일대학교 조기취업계약학과와 MES 통합운영센터를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 정규교과로 학생들에게 MES 수업 진행

한중엔시에스는 우선 실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MES 교과를 정규교과와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눠 경일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OR(공정최적화) 및 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추가 공동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2021년, 경일대학교 산학협력관 내에 공간을 확보하여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공동으로 전국 최초로 실데이터 기반 MES 통합센터 시설을 완공했다.

2021년 2학기부터는 단기 비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2022년 2학기에는 15주차 정규교과목을 개설해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와 스마트경영공학과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MES 통합센터 개소에 대한 관련 소식이 지역 기업들에게 소개되면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업에 대한 홍보나 입시 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 지역 강소기업으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데이터 기반의 MES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실무에서 충분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MES 역량 강화, 계속 지원할 터

한중엔시에스에서 학생들은 전공과 자신의 희망 직무에 따라 업무를 배정받아 현재 기술연구소, 개발팀, 품질팀, 구매팀 등 다양한 직무에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김환식 대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입사한 학생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낸다.

“1학년 때부터 회사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는 학생인 만큼 입사 후 바로 업무에 투입해도 보고서 작성, 직장예절, 회사 실무에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응을 잘 하는 것은 물론 매사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고 있어 각자 팀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엔시에스에는 매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을 채용하고자 한다. 또한 구축된 MES 통합센터를 통해 경일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들이 MES 관련 역량을 강화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다.



## 내가 느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_기업 편

“자신이 원하는 업무에서 꾸준히 기업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 Q1. 같은 업종의 기업에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한 추천의 말을 건네준다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들은 1년간 학교 수업을 받으면서 회사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경험하고 입사해 실무에 적응이 빠릅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저희 회사에 와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변 기업들에게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 Q2. 기업의 입장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업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사숙고하여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이 배운 것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일에 대한 열정은 회사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 혁신적인 3D 프린터 기술과 인재 양성의 성공사례

## 오성시스템(주) OHSUNG SYSTEM CO.,LTD.



### 오성시스템(주)

한양대 ERICA  
스마트융합공학부 로봇융합전공



## “3D 프린터 기술 개발과 함께 할 인재 양성”

오성시스템은 3D 프린터 기술 개발을 하는 회사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최신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던 차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알게 되어 한양대학교 ERICA 스마트융합공학부 로봇융합전공과 협약을 맺었다. 지창욱 대표는 특히 로봇융합전공의 수업 목표와 커리큘럼이 오성시스템이 원하는 방향과 잘 맞아, 입사할 학생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2학년으로 회사에 출근한 학생은 지창욱 대표가 기대한 이상이었다.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순발력으로 회사의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 계속 빛나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 최신 기술 인력 채용을 위해 대학과 협약

오성시스템은 특수 목적 3D 프린터, 로봇시스템, 컨베이어 및 식품 자동화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이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매년 꾸준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 및 인증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연구개발에 힘쓰는 만큼, 오성시스템에서는 늘 전문 연구 인력에 대한 목마름도 있었다.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 관련 기술을 제대로 교육 받은 인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창욱 대표는 한양대 ERICA 스마트융합공학부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라는 제도를 통해, 기업에게 맞춘 인재를 양성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로봇융합전공과 협약을 맺고 오성시스템은 2023년 로봇과 3D 프린터 기술에 열정과 재능을 가진 2학년 이민혁 학생을 채용했다.

## 입사 후, 바로 실무 투입으로 기술적 능력 상승

이민혁 학생은 오성시스템의 사내 OJT 프로그램을 받고, 바로 3D 프린터를 이용한 식품 프린팅 기술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창욱 대표는 이민혁 학생이 아직 학생이지만, 개발에 참여하면서 실무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함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창의성과 혁신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다고 믿었다.

“학과에서 이론적 지식과 기업 환경에 맞는 기술을 습득한 것을 알고 있었고, 해당 학생의 경우는 과에서 대표 역할을 하고 있어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그 기대에 맞게 팀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은 물론이고 발표를 할 때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였습니다.”

이후 오성시스템은 '2022 광주식품대전'과 '2023 대한민국 식품대전'에 참여하면서 이민혁 학생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도전 과제가 있는 전시를 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민혁 학생이 순발력과 기술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해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한 것이다.

## 전시회에서 이룬 성과,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다

지창욱 대표는 한정되고 조급한 전시 준비 상황에서 이민혁 학생이 침착하게 장비 오류를 해결한 점을 높이 샀다. 덕분에 전시는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고 전시 참가자들에게 완성된 3D 프린팅 제품을 성공적으로 시연할 수 있었다.

“이번 두 전시에서 이민혁 학생은 저희 대표 기술인 식품 3D 프린터를 이용해 지자체 시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식품기업 회장 등에게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로고가 찍힌 초콜릿을 출력해 제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품 시연이 아니라 창의적인 기술 응용의 예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VIP급 방문객들에게 칭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부스 관람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전시장에서 보여준 이민혁 학생의 노력과 성과는 이후 오성시스템의 매출 상승과 기술 제휴 제안으로 이어졌다.

## 기업과 학교, 학생이 모두 함께 성장하길

오성시스템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현재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공간을 만들고, 학교와 기업이 연결될 수 있는 연구소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양대학교 ERICA 내에 학연산 연구센터인 오성시스템 ERI센터를 설립했다.

또 다른 프로젝트는 사내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들로 이뤄진 팀을 만들어 사내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학생 연구개발전담팀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기업에서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순발력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성시스템은 2024년에도 2명의 학생을 추가로 선발했고 앞으로도 매년 꾸준히 선발할 계획이다.



## 내가 느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_기업 편

“원하는 학과와 회사를 정할 때 신중하게 살펴야  
학업과 업무에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Q1. 같은 업종의 기업에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한 추천의 말을 건네준다면?**

로봇, AI 등 최신 트렌드의 기술을 다루는 기업에서는 늘 해당 기술을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받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전문적인 기술 교육뿐 아니라 기업에 맞춤형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에서 부족한 기술 분야의 인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Q2. 기업의 입장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통해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뚜렷한 목표 의식 없이, 대학 입학이나 취업이라는 일차적 목표만으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들어오면 열정과 재능을 펼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에 맞는 학과, 자기가 일하고 싶은 분야의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는 접혀 있어야 흔들림 없이 학업과 취업 모두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학 전 학과의 커리큘럼과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은 미리 꼭 알아보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진정으로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